

## 중국에서의 빈사(濒死)체험



천진정신의학전문가들이 《대중의학》 1993년 제 5기에 빈사체험에 관한 문문을 처음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976년 7월

28일, 당산시에 한차례 대지진이 일어나 24여만명이 사망되고 16여만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국의 무사업일군들이 당산대지진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대부분 집이 무너질때 상처를 입고 폐허 속에 깔려있다가 요행 살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중 절반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회억했다. 생명위험에 부딪혔을 때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사유가 특별히 똑똑했고 마음은 각별히 평정 되었으며 아무런 공포감도 없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위험속에서도 즐거웠고 유쾌했으며 사유가 특별히 신속했고 많은 것들이 련상되었다. 이를테면 기뻐던 일, 동년에 재미있었던 일, 련애하던 일, 사업에서 성취를 얻었던 일, 상을 타던 일 등등 지난일들이 주마등마냥 눈앞에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큰 절반사람들이 련혼이 자기 몸에서 분리 되어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둘로 나뉘어져 하나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텅빈 껍데기였고 다른 하나는 자심의 몸이었는데 공기보다도 더

가벼워 공중에서 훨훨 날아다녔고 형언할 수 없이 편안했다.》

약 3분의 1 사람들은 갱도모양의 공간을 지날때 특이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괴상하게 떠드는 소리에 따라 온몸이 끌어당기우고 내리눌리우는 감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갱도안에서 행진하여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 밝은 빛을 보았다.

약 4분의 1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련혼현상을 만나보았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뜬 친인들이었다. 《몽롱속에서 다른 한 세계로 들어가니 두루마기와 마고지를 입은》 한 남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찢뜩거리며 내앞으로 걸어왔다. 거리가 매우 가까왔지만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수 없었고 얼굴은 희미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깊숙한 검은 동굴로 들어갔다. 나의 눈앞은 시커멓고 몸은 저도몰래 끌리워갔다. 검은 동굴끝에 이르니 눈앞에 금빛찬란한 지하궁전이 나타났다. 그는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보고했다. 이윽고 웬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를 먼저 돌려보내라. > 이때 나는 눈을 떠보니 자신이 병실침대에 누워있었고 의사와 호사들이 나를 긴박하게 구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이 빈사체험을 조사한 결과는 세계각국학자들의 조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빈사체험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에게 다른 공간이 존재하며 생명은 죽지 않고 룬회 환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틀동안 저승에서 매를 맞았다

1998년, 사천성미역현신하향에 사는 70여세인 로인은 그의 신기한 경력을 이야기했다. 어느 하루, 중병에 걸린 로인은 《사망》했다. 집식구들은 후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날 아침에 로인은 갑자기 《아유! 날 때리지 마우.》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아들딸들이 그의 옷을 벗겨보니 온몸에 멍이 들었다. 집식구들이 이틀동안 그를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때렸단 말인가?

로인은 말했다. 《그날 난 집을 떠나 걷고 또 걸어 염라대왕궁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앉았다. 염라대왕이 <넌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에 나는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뒤집고 나서 <이승의 수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2년이 있다. 여기서 오래 돌수 없으니 어서 이승으로 돌아가가라. >고 큰소리쳤다.》 인간은 너무 고생스럽고 병이 있어 자식에게 련루된다고 생각한 그는 염라대왕께 저승에 남겨달라고 간청했다

염라대왕은 귀신들을 보고 《이 사람이 가려하지 않으니 당장 그를 끌어내다 때려라.》고 호령했다. 한무리 귀신들이 당금 잡아먹을듯 기세사납게 날뛰었다. 로인이 찬찬히 눈여겨보니 그중 한 귀신은 지난날 토지개혁때 자신한테 생죽음 당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 귀신은 자신한테 총살당한 사촌형이였으며 또 한 귀신은 노끈으로 그의 목을 매어끌었는데, 바로 그가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죽여버린 지주였고, 양괴수회초리로 그를 내리치던 귀신은 그가 채찍으로 때려죽인 토비였다. 로인은 토지개혁때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 지주와 토비를 참살한 이 죄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를 가슴깊이 느꼈다.



미국로스안젤스집회에서 1,900만명의 중공퇴당을 성원

### 할아버지가 손자로 환생



로만·더스팔은 1944 년 호나에서 출생했다. 로만이 3~4 살때의 어느날, 부모가 그를 데리고 35 마일 떨어져있는 둔다스만으로 갔다. 로만은 《그전에 내가 살던 저 협곡에 훈어 공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눈이 보이지 않았어요.》하고 아주 격동되어 말했다. 로만은 할아버지의 두가지 옛 일을 매우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로만의 할아버지는 어부였는데 둔다스만에서 훈어공장을 꾸렸고 1937 년에 85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이미 4 년동안 실명되었다는 것이다. 로만의 아버지는 1942 년에 재혼하여 만아들 로만이를 보게 되었다. 로만의 부모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할아버지의 훈어공장과 실명에 관한 말을 한적이 없었다. 로만의 아버지는 로만의 말이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로만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음을 긍정했다.

### 연변대법제자의 원혼

■ 룡정시덕신향룡남촌 대법제자 김철은 99 년 7.20 이후, 룡정시간수소에서 15 일동안 갇혀 박해를 받았다. 악인들의 끊임없는 소란으로 그는 하는수없이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다 2005 년 9 월에 병으로 사망되었다.

■ 2004 년 8 월 9 일, 연길시경찰소에서 법륜공수련생 류파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즉시로 그의 시체를 가보니 머리가 통통 부어올라 있었다. 경찰에서는 류파가 자살했다고 변명하면서 증거멸소로 가족들에게 묻지도 않고 급급히 그의 시체를 화장해 버렸다.



폭로

박해

### 연변박해소식

■ 연길시대법제자 맹경우(40 세)는 음력설날에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연길시신흥파출소 악경 염모에게 비법적으로 랍치되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달초 5 일부터 악경들은 그를 심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 룡정시대법제자 장영희는 1 월 23 일 룡정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룡정시간수소에 갇혀 로동교양 1 년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장영희가 감금된 기간에 반신불수인 남편과 지력이 차한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은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사망했다. 동수들의 발정념과 정의로운 분들이 그가 사악한 마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줍시다!

### 연길시, 룡정시 610 악인방



박남수	연길시 610 사무실 주임	13844338311
호효연	연길시 610 사무실 부주임	04332995656
허돈의	룡정시 610 사무실 서기	3221356
허정호	룡정시 610 사무실 부서기	325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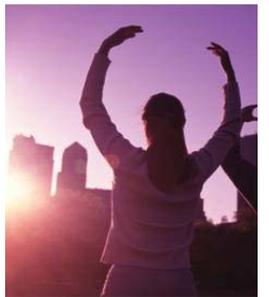
### 수정동 속의 세계



세상의 수정동은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다. 손바닥만한 수정동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작은 수정들이 그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사람보다 더 큰 수정동을 먼데서 보면 작디작은 모래알과 같다. 수정동밖에서 안에 있는 무수한 수정기둥을 보면 매 단일한 수정기둥속에 또 하나의 부동한 세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모래(수정동을 가리킴)속에 3 천대천세계가 있고(수정동속에 성장하는 수정을 가리킴)3 천대천세계속에 또 3 천대천세계가 있으며(수정속의 내함물을 가리킴)3 천대천세계속의 3 천대천세계속에 또 3 천대천세계가 있다. 끝없이 아래로 추궁하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수정동속의 세계는 그 존재형식이 우리세계와 판이하다. 신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역시 이 도리가 아닌가?

### 젊어진 터키 칠순할머니

나의 이름은 나이란-디탈 이고 올해 73 세이며 멀쩡시에서 살고있다. 나는 20 여년 동안 허리병으로 앓아누웠다. 일어날수도 없고 손발을 놀릴 수도 없어 하루세끼를 다른 사람이 먹여주었다. EM 의기로 검사해보니 등허리뼈가 4 곳이 탈구되었던 것이다.



법륜공수련생 외손녀의 권고로 나는 수련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매일 아침 해변가에 가서 단체련공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법공부와 련공을 견지했다.

련공한지 3 주일째 되던 어느 일요일날, 련공장에서 겨우 련공을 끝마친 나는 허리가 예전보다 더 아파서 좀처럼 걸을 수가 없었다. 동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어느새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온몸에 아픈데가 없고 팔다리가 거뻐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때로부터 나의 병은 완치 되었고 젊어지기 시작하였다. 2 년간의 법륜대법수련을 견지해온 나는 지금 2~30 대 젊으니들처럼 혈기가 왕성하고 온갖 집일을 도맡아 하고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법륜대법 사부님과 법륜대법에 감사를 드린다.

